

내가 겪은 민청학련 사건

◎ 유인태

*유인태님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이 때문에 1975년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일제 석방에서 제외되어 4년 4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석방된 후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다.

1974년 4월 3일은 나와 나의 친구 동지들, 선후배 동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이 터진 이 날은 어쩌면 유신 시기의 어두운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영구독재의 천년아성을 쌓으려는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맞서 73년 12월 하순 경부터 약 1백일 동안 밤낮없이 작업해온 전국 대학의 4·3 일제 시위계획이 무지막지한 강권에 참혹하게 강타당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날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에 가입하였거나 이를 찬양하는 사람은 물론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위 농성에만 참여하여도 사형까지 처한다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더욱이 긴급조치 4호에 따르면 이 조치를 비방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늘 아래 이처럼 폭압적인 법령이 있을까. ‘반국가 불순활동 발본색원’이라는 주먹만한 제목 아래 발표된 전대미문의 긴급조치 4호의 12개항 중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②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위에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며, 군 지역 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으시시한 규정이 첨가되었다.

긴급조치 1호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문명세계를 비웃듯 수치스러운 긴급조치 4호는 유신헌체에 가장 강력히 도전할 수 있는 학생세력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날 갑자기 발동된 것이 아니라, 그간 학생운동계를 예의 감시해 오다가 일거에 강타하여 완전 뿌리를 뽑아 독재정권을 반석같이 하겠다는 하나의 작전이었다.

긴급조치 4호의 발동과 반박성명

4월 3일 규모는 작았지만 서울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에

서 시위와 저항이 일어났다. 서울대 문리대의 경우 이미 며칠째 교문 안에 들어와 감시하던 사복경찰과 학생들 사이에 처절한 소규모의 각목전이 벌어졌다. 이미 사세는 기울어졌지만 학생들은 감옥행을 마다않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형사의 팔을 문 학생도 있었다.

4·3시위를 준비해 왔던 학생들은 한편으로 긴급조치 4호의 어마어마한 내용에 기가 죽기도 하였지만, 조금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싸우기로 다짐하였다. 이철(69학번·서울대 사회학과), 여정남(44년생, 경북대 제적)과 나는 4월 3일 밤과 그 다음날 연달아 만나 긴급조치 4호에 대한 단계적 투쟁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것에 대한 반박성명을 내기로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긴급조치 4호란 명목의 최후 발악을 규탄한다. 반민중·반민주·반민족적 집단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의기에 혼비백산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광태를 노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발표, 학생들의 뒤흔힌 구국운동을 왜곡 선전하고, 또 하나의 학원간첩단 사건을 조작 발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민중수탈을 일삼는 저들이야말로 불순집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윤광(66학번·서울대 철학과)과 나병식(70학번·서울대 국사학과), 정문화(70학번·서울대 외교학과), 이근성(70학번·서울대 동양사학과), 황인성(71학번·서울대 독문과) 등도 계속 모여 반박 선언문을 작성하고, 유인물 살포팀을 구성하였다. 유

인물의 등사와 살포에는 정찬용(70학번 · 서울대 문리대), 권오걸(72학번 · 서울대 문리대) 등이 활약하였다.

경계가 삼엄하여 인쇄장소를 물색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꽤 고가로 구입한 등사기는 덩치가 큰 편이어서 옮기기가 용이치 않았다. 피신을 하면서 등사기를 안전한 곳에 옮겨 인쇄를 하는데 정말 애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정찬용과 권오걸은 명동과 신촌 등지에 4·3조치 반박전단을 살포하였고, 현상금이 걸린 강구철(72학번 · 서울대 정치학과)은 권오걸 · 최권행(72학번 · 서울대 문리대)과 함께 당시는 명동에 있었던 국립극장 앞의 맥주홀 2층에서 노상으로 약 2백장을 공중 살포하고, 각각 흩어져 을지로 1가 전 내무부 건물 앞 횡단 보도에서 150장쯤을 또 뿌렸다.

나는 4월 9일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술집에서 비밀리에 김지하(61학번 · 서울대 미학과)와 만나 재야인사들이 긴급조치 4호를 반박하는 성명을 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선배는 노인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며 장기적 투쟁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우리들은 서울은 너무 경계가 삼엄하여 불가능하므로 부산 · 대구 · 광주 의 지방대학에서 새로 시위를 조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체포될 것에 대비하여 2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4월 10일이 넘으면서 우리의 활동은 엄청난 벽에 부딪혔다. 거리 구석구석에 이철과 강구철과 나를 현상수배하는 사진이 나붙었던 것이다. 이제는 친구들 집에도 마음놓고 드나들 수 없었다.

4월 14일, 나와 이철은 여정남의 신설동 하숙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정오 뉴스를 듣던 나는 숟가락을 놓으며 중얼

거렸다.

“아니 2백만원이라니!”

얼마전까지 현상금이 50만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2백만원이라는 것이었다. 말이 2백만원이지, 그 돈을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대충 1억원은 될 것이다.

“셋(이철, 강구철, 나)이 합쳐 2백만원이겠지! 간첩 현상금이 30만원인데.”

이철이 대답하였다.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어. 아무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간첩 몇에 해당하는 현상금을 걸겠나?”

이 다툼은 1시 뉴스에서 해결되었다. 각각 2백만원의 현상금이 붙었던 것이었다. 이철은 나보다 태평한 것 같았다. 그는 여차피 잡힐 것이니까 아는 사람에게 신고케 해서 그 현상금의 절반만이라도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어쨌든 더욱 불안을 느낀 우리는 밖에 나간 여정남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밖에서 돌아온 여선배는 숨찬 목소리로 대뜸 말을 꺼냈다.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것은 자멸행위인 것 같소. 일단 헤어집시다.”

“지금 이 마당에 갈 데가 막연한데요.”

내가 불안스레 말했으나 여선배는 도저히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헤어지는 게 위험이 분산될 것이요, 잡히지 않으면 모래 저녁 6시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만납시다.”

4월 12일 정부터는 같이 일하던 다른 친구들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여정남의 하숙집에서 나오니 전신주와 담벼락마다 현상수배 전단이 수없이 붙어 있었다. 예상대로 정부는 우리가 북괴의 사주를 받아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으로 몰아붙였고, 언론은 그것을 해설까지 곁들여 보도하였다. 당국이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의 소위 사상적 배경과 투쟁목표를 보자.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행동총책인 이철을 비롯한 정문화·유인태·김병근·황인성·이근성·나병식·정운광·서중석·안양로 등 주동자들은 정치 사회 사상연구를 빙자하여 각종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배후 인물로부터 수시 공산주의에 대한 교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북괴 대남방송을 꾸준히 청취함으로써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몰들어 그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른바 노농정권을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본격적인 폭력혁명에 의한 우리 정부 타도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본래의 의도를 은폐하고 학원 내 각종 학생서클을 통해 우선 유신체제와 정부의 시책을 비민주적 독재로 단정하는 일방, 자원파동에 따른 세계적 경제파동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정부의 실책에만 있는 양 과장함으로써 민주회복, 민생고 해결, 매판 배격 등의 명분을 내세워 모의, 반정부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제1단계 전략을 삼고, 다음으로… 4월 3일을 기하여 일제히 봉기하여 시위를 전개한 후 이를 저지하는 경

찰 등에게 미리 준비한 화염병을 투척하고 각목 등으로 대항하여 유혈사태를 유발함으로써… 정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인수하여, 제 3단계에서는 반제·반식민지·반매관을 표방하여 노동계급과 통일전선이 형성된 여타 계급과의 이른바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경찰의 추적, 그리고 체포

나는 지금도 4월 6일 저녁의 불심검문을 잊지 못한다. 그날 저녁 장승배기에 사는 친구 집에 가다 장승배기 파출소 앞에서 불심검문을 받았다.

태연히 내미는 주민등록증을 플래시로 비춰보던 형사는 아무 말없이 도로 내주었다. 아, 나는 아직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는가 보구나. 나는 얼마만큼 안심되었다. 30분쯤 뒤였다. 그 파출소의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주민증을 보자고 하기에 쳐다보니 아까 그 사복형사였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내친 김에 나는 한마디 더 보탤다.

“무슨 강력사건이라도 났나요?”

“아, 그놈의 학생들 때문에 이 고생이오.”

조금 있다 등산복 차림의 한잔 걸친 두 청년과 사복형사간에 언쟁이 붙었다. 당신이 뭔데 주민등록증을 내라 마라 하나는 항

의에 그 사복형사는 주머니에서 수배자 명단이 적힌 종이쪽지를 꺼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유인태란 이름 석자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조금 친숙해진 그 사복형사에게 한마디 더 건넸다.

“그 몇 놈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구먼요.”

“전국적으로 수만 명 고생시키지요. 빨리 잡혀야 할 텐데.”

그날 나는 장승배기에서 안양로(68학번 · 서울대 정치학과)의 하숙집으로 향했다. 삼선동 한성여고 앞의 산동네였는데, 그 집 아들이 경동고 3학년이어서 안양로가 영어 등을 가르쳐 준 덕택에 친구가 찾아가도 대우가 껍 후했던 것이다. 4월 14일 밤, 신설동의 여정남씨 하숙집에서 나온 나는 다시 안양로의 하숙집으로 가기로 했다.

거기밖에 떠오르는 곳이 없었다. 안양로가 묵는 문간방 유리창을 두드리자 한참 후 그 고등학생이 내다보았다. 나는 살았대 싶어 무척 반가웠지만, 나를 힐끗 본 그 학생은 좀 놀라는 기색이었다. 대문을 따주나 했더니 조금 지나 그 학생과 누이가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와 같이 나왔다. 아주머니는 “양로 학생 요 앞에 나갔으니 들어와 잠시 기다려요” 하고는 자식들을 향해 “나 요 앞에 마실갔다 올게” 하는 것이었다.

이상한 예감이 좀 들어 그 학생에게 “자네, 나 수배된 것 아나?” 했더니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바로 “신고했지!” 하고 물으니까 그 학생은 역시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주머니는 “그럴 리가 있어요? 들어가 기다리시라니까” 하고 말했다.

아차 싶어 얼른 발길을 돌려 10m 쯤 갔을까, 바로 앞 계단으로 앞엿총 한 정복경찰 6명이 사복에 인솔되어 나타났다. 순간

주머니에서 며칠 전 샀던 도수없는 싸구려 안경을 꺼내 쓰고는 앞으로 걸었다. 뒤에서 “바로 저 사람이예요” 하고 소리칠 것만 같았다. 무사히 스쳐 지나 계단에 접어들자 꼬불꼬불한 계단을 정신없이 내리뛰었다. 바바리 주머니의 동전소리가 퍽 거추장스러웠다.

나는 경기중고 다닐 때 단거리 선수였다. 왕년에 1백m를 12초 5에 주파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계단을 다 내려와 제법 큰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오른쪽으로 한성여고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기에 그리고 꺾어져서 정신없이 한참을 뛰어 동도극장 뒤쪽에 왔을 때 빈 택시를 잡게 되었다. 택시에 오르는 순간 앞이 노래지고 구역질이 나 그대로 뒷자리에 누워버렸다.

“손님, 어디 가시나요?”

“중랑교요. 어휴, 그놈의 깡패 새끼들 때문에 큰일날 뻔했네.”

운전기사가 꼭 파출소로 데려갈 것만 같아 묻지도 않는 말까지 했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해 기본요금 거리만 가서 일단 내려 택시를 갈아타고 중랑교 유흥준(68학번·서울대 미학과) 집에 갔다.

유흥준 부모는, 바로 조금 전까지 형사들이 잠복하다 나갔는데 어떻게 무사히 왔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무사히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흥준이 아버지와 같이 나가다가 잡히면 자수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잡히지는 않아 택시를 타고 피할 만한 데를 골뜩히 생각했지만 떠오르지를 않았다.

마지막으로 미아리 우리 집에서 한 정거장 전 부근에 있는

빵집에 와서 성북동 절에서 고시공부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귀찮았다는 얘기였다. 수화기를 놓는 순간 밖에서 건장한 사내가 들어왔다.

“당신 유인태지” 하며 그는 수갑을 채웠다.

1분도 안되어 검은 지프에 실려가는 도중 “어이 김형사, 우리 공동체포야” 하고 한 형사가 말했다. 3명이 특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북부경찰서 3층의 정보과로 올라가는 계단 벽마다 내 사진이 붙어 있었다. ‘현물’을 인도받은 정보과장은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일단 남산 중앙정보부 분실로 실려갔다. 이로부터 나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4년 4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반유신 투쟁의 첫 봉화 10·2 시위

전국대학의 4·3 일제시위 계획은 73년의 10·2 시위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9월 초부터 서울대 문리대의 나병식·정문화·이근성·정찬용 등이 계획을 세운 10·2시위는 유신체제가 성립한 뒤 거의 1년이 다 되어 일어난 최초의 규모가 큰 반유신투쟁이었다. 10·2시위 이전에도 73년의 부활절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반유신운동이 일어나, 이 때문에 박형규 목사 등이 구속된 바 있었다.

10·2시위는 그 해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또 10·2시위 주동자들은 서울대 법과대·상과대 학생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대 문리대의 각 강의실 복도에서는 “도서관에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물러나와 4·19탑 앞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도 비통하고 참담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에 만연된 무기력과 좌절감, 불의의 권력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 모든 패배주의·투항주의·무사안일주의와, 모든 굴종의 자기기만을 단호히 걷어치우고 의연하게 악과 불의에 항거하여 이 땅에 정의, 자유, 그리고 진리를 기어코 실현하려는 역사적인 민주투쟁의 첫 봉화에 불을 붙인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항거하는 우리의 투쟁은 더없이 뜨거운 정의의 불꽃이며, 더없이 힘찬 민중의 아우성이며, 더없이 고귀한 민족생존의 활로이다”라고 외쳤다.

학생들은 삼시간에 6, 7백명으로 불어나 스크럼을 짜고 독재 타도를 외쳤다. 이 날의 시위는 선배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감격적이었다. 6·3시위 이래 일순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는 드문 일이었다. 과거에는 4·19탑 앞에서 며칠간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학생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과거에는 이과계 학생들은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이 날은 전혀 달랐다. 그야말로 혼연일체였다.

여학생들도 다수가 물동이 등을 들고 학생시위에 가담하거나 거드는 것도 과거에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윤혜영(71학번·동양사학과) 등 몇몇 여학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부활절 시위 이래 황인성 등 기독교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열심

全國各地서 謀議 200여

全國民主青年學生聯合會事件關係圖

民青學聯 사건 接

1974년 5월 27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전모 발표 기사

화염병 角木도준비

화염병을 던진 학생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었다. 이 사진들은 학생들의 분노와 투쟁의 열정을 보여준다.

▲ 1974년 5월 27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전모 발표 기사

히 일하는 것도 과거에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유신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후 학생운동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역력하였다.

12시 30분 경, 교문 밖에서 대치하던 경찰이 교내로 진입하여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잠깐 사이에 180명의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중 20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양로 등 23명이 제명, 18명이 자퇴, 56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단일사건으로는 보기 드문 대탄압으로, 이후 유신

정권의 강권정치를 내다보게 하는 조치였다.

10월 4일에는 서울대 법과대에서 두 번째 시위가 벌어졌다. 이 날 오전 11시, 법과대는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결의를 한 다음 교문을 나와 문리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다음날에는 상과대학생 3백여명이 쫓기하였다. 이 날 김병곤(71학번·경제학과) 등 3명이 연행되었다.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대량 구속, 대량 제적은 훨씬 더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10월 하순부터 서울대 등 전국 각 대학에서 이들 학생들의 석방과 처벌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간 것이다.

학생들은 최초에는 동맹휴학이라는 방법을 많이 썼다. 주로 학과 단위로 모여 토론을 열띠게 벌이고 투표에 의해 동맹휴학을 결의하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소수학생의 선동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떻게 보면 동맹휴학은 시위보다도 어려운 것이었으나 서울대 문리대 등 여러 대학에서 거의 1백%에 달하는 동맹휴학 성공률을 보였다. 1947년에 있었던 국대안 반대 동맹휴학 이후 처음 보는 규모였다.

이화여대나 연세대 등 기독교 계통 대학에서는 채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화여대의 김은혜 등은 채플시간에 4천명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민주체제 확립, 구속학생 즉시 석방 등의 주장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검은 리본을 왼편 가슴에 달기로 하였다.

11월 하순부터 동맹휴학·수업거부에서 나아가 시험거부운동이 전개되었다. 11월 21일 서울대의 교양학부생 1천 200명은

기말시험을 거부하고 가두로 나갔으며, 다음날에는 서울대 문리대가 방학에 들어갔고, 한국외국어대와 춘천 성심여대도 방학 아니면 종강에 들어갔다. 11월 26일에는 송전대·서울여대·연세대·고려대 학생들이 시위 또는 농성을 하였고, 서강대 총학생회는 학기말 시험 거부를 결의하였다.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의 거의 모든 대학과 지방의 주요 대학들이 시험거부 또는 시위를 하였다.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학생들의 시위는 유신의 강권철폐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12월 7일 박대통령은 민관식 문교장관을 불러 10월 2일 이후 있었던 구속학생들을 전원 석방하고 모든 처벌도 백지화하라고 지시하였다. 백기를 든 것이었다. 어쩌면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이렇게 굴복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학생들의 시위가 일단 동면으로 들어가자 지식인과 사회원으로 등의 움직임이 뒤를 이었다. 특히 73년 말과 74년 초의 지식인 운동은 71년 이후 처음 있는 규모가 큰 움직임이었다. 73년 12월 24일에는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30명이 헌법개정청원 운동본부를 발족시켰고, 여기에 통일당 등 정당과 학생회, 기독교 성직자들이 뒤따랐다. 1월 7일에는 이회승, 이호철, 백낙청 등 61명의 문인이 서명하고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73년 12월 31일에는 윤보선, 김수환 등 각계 지도급 인사 15명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박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이제 유신세력은 유신체제를 포기하고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느냐, 유

신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철면피한 강권을 휘두르나니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물론 후자를 택했다. 1월 8일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었고, 이로부터 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이 궁정동에서 살해될 때까지 암울한 긴급조치시대가 전개되었다.

학생운동의 조직화

새로운 차원의 학생운동의 필요성은 73년 11월 말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69년 또는 71년 제명,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한 선배 또는 제대한 선배들은 10월 1일 이후 학생들의 반독재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무언가 자신들도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철, 서중석(67학번·서울대 국사학과) 등은 10월 2일부터 후배들과 보다 긴밀히 접촉하였다. 서중석, 유인태(여기서부터는 객관성을 갖기 위해 직접 이름을 쓰겠다), 안양로, 제정구(66학번·서울대 정치학과), 김효순(70학번·서울대 정치학과) 등은 11월 말 경 돈암동의 석굴암 주점 등에서 만나 장차 학생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2월 초 서중석은 원주에 있는 김지하를 찾아갔다. 67년 대학에 들어와 김지하와 인연을 맺고 3선개헌 때 선후배로 활동하였던 바, 10·2 시위 이후 학생운동을 종합 검토해 보기 위해서였다. 이미 이철도 김지하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었다. 원주는 지학순 주교와 박재일 등 농민운동 종사 선배들이 여럿 있어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학생운동의 조직화 필요성은 12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구체화 되었다. 서중석과 유인태, 유인태와 이철, 이철과 서중석 등은 서로 만나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나본 후배관계 등을 얘기하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서중석은 정윤광도 만나 보았던 바, 정윤광은 이미 동국대와 성균관대, 서울대 의대 후배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어 적극 환영하였다.

한편 10·2 시위의 주동자인 나병식, 정문화, 황인성 등도 자주 만나 작업을 구체화해 가고 있었다. 김효순은 서울대 단과대 동기 친구들과 접촉 중이었다. 서중석 등은 장준하, 백기완, 김윤수 등과도 접촉하여 어른들의 상황을 탐문하였다.

이철과 유인태는 12월 25일 전날 제일교회에서 만난 일본인 기자 하야카와 요시하루와 다치카와 마사키를 만나 정릉에 있는 요시하루의 집에서 학생운동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후에 우리가 국외 공산계열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일본인들은 꽤 낭만적이기도 하여 무장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우리가 영향받거나 지원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 되어 잘못 일본인을 만나면 정보부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으니 만나서는 안된다는 주의가 주어졌다.

12월 하순에는 대구에서 과거 경북대의 정진회에서 주최한 4·19 제 11주년 기념 전국대학생 서클 대항 학술토론회에서 낮을 익히고 71년 교련반대투쟁에서도 만났던 여정남이 서울에 올라와 유인태와 이철을 만났다. 여정남은 이밖에도 서울대의 신금

호(65학번·서울대 정치학과), 서중석, 연세대의 이상문(69학번·연대 국문과) 등과도 만나 정세를 논의하였다. 그 뒤 여정남은 유인태와 주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사건을 또 빨강계 만들었다. 우리가 국내 공산계열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선배와 우리는 순수한 입장에서 학생운동을 상의하였을 뿐이다. 이때 3·4월 위기설이 나들기 시작하고, 미국이 유신체제를 반대한다는 소문이 광범하게 떠돌아 유신반대운동을 고무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것이다.

74년 1월 8일 오후 5시를 기해 선포된 긴급조치 1, 2호는 조금도 우리의 활동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하면서, 이를 위반하거나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긴급조치 1호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층 비밀스럽게, 그리고 한층 조직적으로 하도록 부추겼을 뿐이었다.

1974년 1월 10일 경 유인태 집에서 모임은 최초의 중요한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연결 문제와 상황파악,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중석, 유인태, 이철, 나병식 등 4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나기로 한 첫 번째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 생각지도 않게 박순식(68학번·서울대 사회사업학과)이 들러 조금 난처하게 되었으나, 박순식도 끼어서 함께 얘기하였다.

이들 전에 내려진 긴급조치 1호에도 불구하고, 반유신시위를

준비하는 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데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 긴급조치 1호가 떨어진 이상 여기에 과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학생밖에 없을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이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3·3·3원칙의 채택

여기서 당시 대학간의 연결관계를 좀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청학련 사건으로는 허술한대로 최초로 소개되는 것이므로 역사적인 자료나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인태는 정문화, 황인성, 전홍표 등과 함께 서울의 각 대학과 지방대학을 연결하는 일에 치중하기로 하였다. 이미 유인태는 연세대와 이화여대와 접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운광의 소개로 동국대 등 몇 대학과 긴밀히 연결을 취하면서 경북대, 강원대 등 지방대학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전남대는 나병식, 이철 등이 많이 접촉해 왔으나, 유인태와 연결하기로 하였고, 서강대는 이철이 계속 연락관계를 갖고 있었다.

서울대 내의 단과대를 조직하는 일은 이철이 김효순 등과 함께 맡기로 하였다. 서울대 의대의 연락은 정운광을 매개로 다시 연결짓기로 하였다.

한편 전국적인 유신반대 시위에는 반드시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세력과 선배들을 포함한 사회세력을 적극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이미 종교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신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저명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가 우리를 공산주의 활동으로 몰거나 탄압하는데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기독교 세력 접촉은 나병식이 주로 전담하고, 다른 부분은 서중석, 나병식 등이 서로 협조하여 맡기로 하였다. 또 서중석은 유인태, 이철의 연결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계속 맡기로 하였다.

전국적인 대학의 시위 준비는 3·3·3 원칙을 중시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신반대투쟁의 열기는 당시의 냉혹한 상황 아래서는 서울대가 가장 높았으므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문리대와 법대, 상대의 셋을 주축으로 묶고, 투쟁 열이 강한 의대도 중시하면서 공대, 사대 등과도 연결을 갖는 것이 첫번째 핵이었다.

두 번째의 핵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삼각의 축으로 하고, 여기에 73년 가을 투쟁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이화여대를 별도의 동맹세력으로 하고, 그 위에 서강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세 번째 핵은 전국의 조직은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를 주축으로 하였다. 부산대, 강원대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대와 직접 관계를 맺거나 경북대, 전남대 등에서 연락을 갖기로 하였다. 나중에 합의를 본 것이지만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의 만남은 대전 등 중부지역에서 주로 갖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연결은 2월 하순까지 일단락되었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연결도 이철이 구충서(단국대)와 함께 진행했으나, 가장 안 되는 곳은 고려대였다. 고려대는 71년 위수령 때에도 탄압을 많

이 받았지만, 그뒤 이른바 민우지 사건과 검은 10월단 사건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 전체를 묶어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서울시내 중요 대학 모임에 고려대에서는 임시로 대타가 나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정보부는 민청학련이 마치 배후조종을 받아서 된 것처럼 근사하게 도표를 그리고, 그것을 단풍잎처럼 빨갱게 물들였지만 실제 배후란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전의 베테랑들이 중형을 받을 일을 하면서 남의 사주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억지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1월 10일의 모임에서도, 그 뒤의 모임에서도 거둬 확인하였지만 선배들이나 사회인사들의 간섭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책임은 주로 서중석이 맡았다. 모든 결정은 우리들 스스로가 했다. 유인태가 잡혀들어갔을 때 배후를 대라고 욕박지르기에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여 서중석을 얘기하였더니 들은 체도 않았던 일도 있었다.

사실 이미 정보부에서는 유인태가 잡히기 전에 도표를 그려 놓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동갑이지만 1년 선배인 서중석이나 2년 선배인 정윤광 등이 이철과 유인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번득이는 감시망 속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일들은 이중 삼중으로 연결되고 검토 분석되면서 진행되어 갔다.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대학 연결을 맡은 유인태나 서울대 내 단과대와 서울대 여학생 조직 등을 맡은 이철도 그밖의 일에 많이 관여하

고 있었지만, 정윤광, 서중석, 나병식 등도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의 활동이 드러나려면 수십명의 주요 관계자가 모여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만 들어보자. 서중석은 한편으로는 유인태, 이철, 나병식과 모임을 가지면서 같은 성격의 모임을 정윤광과도 갖고 있었다. 서울대 내의 일로는 김효순, 이근성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문리대와 상대 후배들과도 따로 독자적 연결망을 갖고 있었다. 선배들로는 윤무한, 이현배(63학번·서울대 사학과), 조영래(65학번·서울대 법과대), 손학규(65학번·서울대 정치학과) 등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현배는 이현배대로 사회 저명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선후배 관계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 조영래는 김지하, 지학순으로 연결되는 원주와의 연결 외에도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

기독교와의 연결은 기독교학생운동에 영향력이 큰 서경석(66학번·서울대 공과대)과 서중석 사이에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어른들과의 관계는 김윤수 교수 등과 만나 검토하였다. 서중석은 유근일 등 선배들과도 일정한 간격으로 접촉하였다.

비용은 철저한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3월부터 합숙과 각종 자료구입 등으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두어 군데 돈만은 받아 쓰기로 했다. 지학순 주교 - 김지하 - 조영래 - 서중석의 라인과 윤보선 전대통령 - 박형규 목사 - 나병식의 라인이 그것이었다.

4·3 시위의 태동

고려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월 하순에 불철주야로 뛰어난 결과 전국적인 대학간의 연결이 거의 완료되었다. 이제 3월부터는 시위에 들어가야 했다. 그럴려면 일의 체계를 새로이 정비해야 했다. 또 유인태는 2월에 졸업하였기 때문에 현장제일의 원칙에 따라 상부 연락망만 쥐고, 일선의 일은 후배에게 넘겨줘야 했다. 새로운 담당자로 개편하는 일도 시급하였다.

3월 7일의 모임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검찰의 공소장은 이 날을 소위 민청학련을 조직한 날로 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1항 및 2항 위반자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요란하게 채색하여 기재했는데, 이 날 모임에서 역할 분담을 새로 한 것은 틀림없었다.

역할 분담을 하는데 논란이 많아 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다. 현장을 이철,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이 맡는다는 데는 쉽게 동의했지만, 구역 정리에 이견이 나왔던 것이다.

결국 이철이 현장 전체를 책임지고, 정문화가 서울대 내 각 단과대학의 연결을, 황인성이 지방대학과 이화여대의 연결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다음날부터 일제히 합숙으로 들어갔고 일일점검체계를 갖추었다.

공소장에 의하면, 3월 7일 유인태 집에서 서중석, 유인태, 이철, 나병식, 정문화 등 5인 모임에서 공산폭력혁명 과정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조직을 완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지금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의 시위준비활동을 폭력혁명으로 몰 가능성이 크므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우선 어떤 경우에도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명칭이 있으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3월 28일 이후 일부 유인물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름이 붙은 것은 유인물 아래 아무 이름도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그냥 붙인 것이었다.

이철은 이날 모임에서 화염병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화염병 한 두개 만들어 사용하면 정부는 좋아라 하고 폭력혁명으로 몰아붙일 것이 명약관화하였던 것이다.

새벽 2시 경 정식 논의가 끝나고 몇 사람 사이에서 대학끼리 연락을 잘하여 명동이나 동대문 등 몇 군데 집결하여 시위를 벌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배, 조영래 등도 이런 얘기를 서중석한테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이 공소장과 판결문에서는 학생들이 종로 5가, 신촌로터리, 청량리 대왕 코너 로터리 등에 각각 집결하여 “그 부근 노동자 및 영세상인의 호응을 받아 광화문·시청 앞으로 돌진, 중요 국가기관을 점거하는 등 폭동화함으로써 유신헌법을 반대, 정부를 전복코자...”로 둔갑하였다.

1974년 3월 당시의 우리들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정부에서는 자세한 실정은 몰랐지만, 3·4월 위기설과 함께 학생들이 아무리 혹독한 탄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들고 나올 것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철은 다시 수배되어 있었고, 유인태

등도 찾고 있었다. 나중에 정보부에 들어가 안 일이지만 당국은 이철 등에 대해 그 동정을 1일 체크하고 있었다. 서중석이 당시 말한 대로 당국은 이를 키워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중형을 받을 것이 틀림없었지만 필사의 각오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규모가 큰 시위를 일으킬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대체로 3월 말에서 4월 초가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전국 대학의 일제 시위가 있기 전에 학생 대중들의 반응과 당국의 조치를 살필 겸 몇 개 대학에서 유신헌법 반대 투쟁을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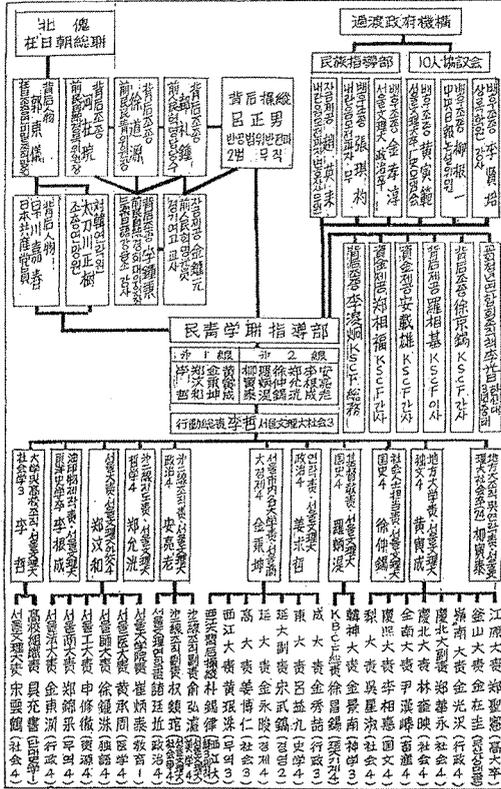
최초의 선도투쟁은 한신대에서 하기로 하였다. 3월 10일 경이었다. 그러나 한신대의 시위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대신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신대에서는 음성적인 반유신 투쟁이 전개되었다.

3월 중순 경 지방에서 먼저 시위를 일으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이강철 등 경북대측에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앞장서겠다고 제의해 왔다. 날짜는 3월 21일, 유인물은 3월 20일 전후 해서 만들어졌다. 이 날 경북대에서는 2백여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예상보다 적었다. 탄압이 너무 강경하였던 것이다.

서울에서의 시위는 서강대가 먼저 하고, 그 뒤를 연대가 이은 다음, 4월 3일 서울과 지방에서 일제히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3월 28일 서강대생 3백여명이 학교 구내식당에서 13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였다. 4월 1일에는 연세대 강당에서 채플

全國民主青年學生總聯盟事件體系圖



▲ 증정정보부가 조작 발표한 민청학련 조직체계도

이 진행되는 도중 송무호군이 단 위에 뛰어 올라가 선언문을 읽다가 연행되었다.

서강대생의 시위를 신호로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벌였다. 이미 3월 29일까지 서중석 등 수십 명을 기습적으로 일제 검거하였고, 3월 30, 31일, 4월 1, 2일에도 끊임없이 서울대생들을 검거해 갔다.

계속 검거되는 속에서도 4월 1, 2일에 서울대 문리대 등에서

는 잇달아 소규모 시위가 있었고, 4월 3일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일제히 데모가 터졌다. 이 날 오전 11시쯤 서울대의 대생 약 5백 여명은 흰 가운을 입고 시위에 들어가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경찰제지로 봉쇄되었다. 같은 시각 길 건너편 문리대 4·19탑 앞에서는 1백 여명의 학생들이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했고, 성균관대생 4백 여명은 캠퍼스 안에서 성토를 벌였다.

이화여대생 3천 여명은 대강당에서 있는 채플 시간에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대생들은 저녁 무렵 40 여명이 청계천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규모 학생 시위를 예상했던 시청 앞에는 경찰, 기관원, 향토예비군 등이 동원되었고, 오후 10시를 기해 앞서 말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었다.

「민중·민족·민주선언」

4월 3일을 전후로 하여 뿌려진 유인물로는 「민중·민족·민주선언」 외에도 「결의문」, 「행동사항」, 「지식인·언론인·종교인에게 드리는 글」과 제목이 없이 “근로 대중이여 쫓기하라! 압박 받는 민중이여 쫓기하라!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이여 쫓기하라!”는 문구와 함께 “굶어 죽을 자유말고 먹고 살 권리 찾자 / 배고파서 못살겠다 기아임금 인상하라 / 유신이란 간판 걸고 국민 자유박탈 말라 / 남북통일 사탕발림 영구집권 최후수단 / 재벌 위한 경제성장 정권 위한 국민총화 / 왜놈 위한 공업화에 민중들만 죽어난다”는 4·4조의 노래(?)가 실린 전단도 있었다.

장기표(66학번·서울대 법과대)가 김병곤을 통하여 전달, 다

량으로 인쇄한 장문의 이 「민중의 소리」는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당국은 몇가지 문구를 가지고 체제를 진복하려 한 것이라고 몰았다.

이중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이름으로 발표된 「민중·민족·민주선언」은 80년대에 전개된 민중·민족·민주운동의 선구격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당시 학생운동의 성격을 엿보는 데 중요한 것이므로 그 요지를 소개한다.

바야흐로 민족 승리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공포와 착취, 결핍과 빈곤에 허덕이던 민중은 이제 절망과 압제의 쇠사슬을 끊고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작년의 역사적인 10월투쟁에 대한 저들 권력배들의 응답은 오로지 기만적 회유와 폭압정치의 증대뿐...

이러한 국민경제의 전면적 파탄은 자원과 노동력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외국독점자본을 이 땅의 경제종주로 뿌리박게 한 때 판특권체제와 부정부패의 여파가 확대재생산되는 창부경제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기아수출 입국, GNP 신앙을 교리로 내걸고 민족자본의 압살과 매관화를 종용하여 수십억 불의 외채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며, 혈세를 가렴하여 절대권력과 폭압정치의 밑천으로 삼고, 기간산업을 포함한 주요 경제부문의 국별 사유화를 획책해 온 저들 매관족벌들이야말로 오늘의 돌이킬 수 없는 참상을 초래케 한 장본인이다...

기아임금으로 흑사당하는 근로 대중과 봉건적 착취 아래 신음하는 농민, 그리고 또하나의 격리된 세계에서 확대되어 가는

판자촌, 이것이 23년에 걸친 조국 근대화의 업적인가? 오늘의 물가고와 경제파탄을 초래케 한 부패 특권주벌들은 이러한 서민생활의 위기에서도 거대한 이윤을 취하면서 민족적 불만을 무마하려는 등 막바지에 다다른 그들의 잔명을 보존하고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수탈체제의 수호신은 바로 1인 독재체제와 정보 폭압정치이다.

5년 전의 3선개헌으로부터 노골화된 영구집권의 야욕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수많은 애국인사를 체포, 구금, 고문, 투옥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소위 유신이란 해괴한 쿠데타, 국가비상사태와 1·8조치 등으로 폭압체제를 완비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과 교회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비판할 수 없는 정치, 이것이 과연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내걸고 시작된 남북대화로서 그 동안 우리는 통일의 문앞에 다가서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의 영구분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대화는 영구집권을 위한 장식물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남북통일이 오로지 그들의 점유물인양 떠들면서 폭력정치와 민중수탈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할 때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만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모르는가?

보라!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상태를 강요하는 저들 깡패 집단들을! 보라! 호화방탕을 일삼으며 민중의 살과 뼈를 삼켜 살찐 저도둑 무리들을! 보라! 이 땅을 신식민주의자들에게 제물로 바친

저 매국노들을!

우리는 부패 특권특별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파멸상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중적 집단을 분쇄하기 위한 숭고한 민족·민주 전열의 선두에 서서 우리의 육신을 살라 바치려 한다.

용공조작과 고문

4월 3일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후 정부는, 수사당국이 조사한 인원은 총 1천 24명으로, 그중 자진고지자가 266명, 검거자가 732명(26명은 수배중)인데, 이중 자진고지자 전원과 부화뇌동했던 학생 등 740명은 훈계 방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때까지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고 한다.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찬국 교수, 김동길 교수 등 모두 공범이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03명, 이중 55명이 1차로 기소되었다.

붙잡혀 온 학생들은 간담이 서늘하였다.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긴급조치 4호가 상상조차 못한 초강경조치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북괴의 조종을 받아서 했다는 수사관들의 엄포에, 뭘지 잘 모르고 오로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한 대다수 순진한 학생들은 저절로 오금이 떨리고 선배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수사관들의 공갈과 고문에 선배들이 공산주의 폭동을 일으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강제로 쓰기도

하였다.

사실 정보부는 이미 국민들한테 대문짝만하게 발표한 것도 있고 해서 배후를 만들어 도표를 그려내려고 혈안이 되었으나 4월 초순까지 이렇다할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4월 중순이 되어 서야 유근일, 김지하, 이현배 등이 배후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누가 봐도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고, 유근일은 격려의 애기와 약간의 풍돈을 준 것을 제외하고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계속 민청학련 사건을 빨갱게 물들여 폭력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고 매스컴에 크게 보도하게 했다.

소위 인혁당 사건은 4월 말부터 서야 요란하게 붙여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4·3사건을 기회로 자신의 권력을 반석같이 굳히고, 앞으로 어떤 반유신 세력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증유의 초강경 폭압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잡혀온 학생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3월 28, 29일 등 최초로 검거된 학생들은 특히 많은 고문을 당해야 했다. 수배자들도 체포하고 배후도 만들기 위해서였다. 밤낮으로 신발을 벗겨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 찜질과 불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누르기, 몽둥이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몽게대는 고문을 해댔다. 몇날 며칠이고 잠을 못자게 하고 흰 벽을 쳐다보게 하는 고문도 있었다.

물론 물고문도 있었다. 발가벗긴 뒤 나무 사이에 묶어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 다음 수건을 얼굴에 씌우고 주전자로 물을 붓는 것이었다. 숨이 콕콕 막혀 오두발광을 할 때면 “너 군대에 있을 때 북한에 갔다 왔지?” 하는 것이었다. 견디다 못해 그렇다고

끄덕이면 물붓기를 중단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거부하면 또 물고문…

지하실에서 로프로 사정없이 등짝을 후려갈기기도 하고 사정없는 몽둥이 찜질에 손이 살갓에 조금만 닿아도 소스라칠 듯 아파 맞을 때보다 더 고통이었다. 며칠 지나면 친절하게 안티프 라민같은 것을 발라주고 위로도 해주었다.

수사관들은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도 많이 썼다. 어떤 수사관은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지르는 역할을 주로 맡은 것 같다. 밤새 고문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실제 고문당하는 상황인지 녹음기 소리인지 구별이 어려웠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고문당하던 몇몇이 4월 15일 경에 야 서대문구치소에 넘겨졌을 때, 그래서 서대문구치소의 숨이 여기저기 빠져나온 푸르딩딩한 이불을 둘러쓰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천국이나 특급호텔의 특실에 온 기분이었다는 것이다.

4월 15일부터 정보부로 끌려온 나는 좀 특이한 고문을 당했다. 이미 나에 관한 조서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었다. 때문에 과거에 한 행위 자체로는 먼저 잡힌 사람들에 비해 고문이 아주 적은 편이었다. 그 대신 아직 붙잡히지 않고 있는 이철을 찾아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맞았다.

4월 15일 새벽 1시쯤 남산 정보부에 도착하자마자 6국장 이용택을 필두로 수사관들이 나와 이철과 마지막 헤어진 여정남의 신설동 하숙집으로 득달같이 끌고 갔다. 그 난리에 잠자던 고대생 등 하숙생들이 탁달당했고, 새벽 2시쯤 끌려나온 신설동의 동

장과 파출소장도 곤욕을 치렀다. 이용택은 조그마한 권총을 파출소장의 이마에 대더니 “너 죽고 싶냐?”고 외쳤다. 왜 이철을 못잡았느냐는 것이었다. 파출소장은 겁에 질려 후들후들 떨었다.

이철의 소재를 물었지만 나는 알 턱이 없었다. 수사관들이 꽤 기도 하고 얼르기도 해 얼떨결에 “부산으로 간다고 했다” 하자, 경부선 열차와 고속버스가 비상이 걸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16일에는 여정남이 잡혔는데, 그는 마지막 헤어질 때 이철과 여정남, 나 셋이서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16일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나의 체포사실이 보도되었기에 무효라고 생각하고 붙었던 것 같았다. 과장인가가 내 방에 와 “이 새끼, 얼드려!” 하더니 왜 그 약속을 불지 않았느냐고 매타작이었다.

16일 오후 4시부터 어린이대공원 일대에는 이색적인 작전이 펼쳐졌다. 개인택시 수십대에 남녀 수사관이 아베크 차림으로 진을 쳤다. 공원으로 통하는 모든 버스 노선은 이미 몇시간 전부터 체크에 들어간 모습이었다.

작전 개시 1시간여만에 허탕임을 확인한 수사관들은 바로 남산의 정보부 지하실로 나를 끌고 갔다. 예의 배후와 이북방송 들었느냐는 것, 일본인 기자와의 인터뷰 건이었다.

“다이얼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어쩌다 이북방송이 들리는 수도 있잖아?”

“서울에서 도대체 이북방송이 나옵니까?”

“이 새끼, 아직 정신 못차렸군!”

발가벗기고 무릎 꿇리운 채 지켜온 문답이 반복되었다.

이미 김대중, 장준하, 천관우 등과 김지하를 취재하면서 마

지막으로 학생운동 리더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여, 김지하의 소개로 임진택을 통하여 나와 이철을 만난 12월 하순의 일본인 기자와의 인터뷰는 앞서 말한대로 별 내용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때 통역을 맡았던 후배 조직회가, 왜 그렇게 쓰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쓴 자술서에는 온갖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다. 그것을 자인하라는 협박과 고문이었는데, 결국 나와 이철은 엄지손가락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수사관들은 역센손으로 나의 엄지를 잡고 그들이 필요한 곳에 열심히 눌러댔다.

나에게는 최후로 인혁당 작품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위 인혁당의 민청학련 배후조종건이었다. 처음 수사관들이 여정남에게 내가 모든 것을 지령했다고 쓰라고 하기에 “이분은 선배인데 어떻게 내가 지시를 합니까?” 했더니, “임마, 선배 좋아하지마. 너희 서울대 애들은 지방대 애들을 우습게 알잖아” 하며 막무가내로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면서 거꾸로 내가 여정남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시, 지령받았다고 바꿔 쓰라고 압박질렀다. 왜 그러는지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항의를 하였다.

“그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서울의 학생운동 사정에 어두운데 무슨 지시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 새끼야, 잔말 말아. 그래도 선배잖아!”

이렇게 해서 소위 인혁당과의 관계가 생긴 것이다. 정말 인혁당 관계자들이 우리 학생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는, 그래서 전기고문에 탈장현상같은 것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은 나중에 재판받을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허위 조작된 인혁당 배후

1차 기소된 54명 가운데 22명은 인혁당 사건으로 재판받았고, 32명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재판받았다. 재판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6월 15일부터 용산의 국방부에 인접한 비상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렸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75년 4월 8일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가족들을 면회할 수 없었다.

법정 방청은 가족중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었다.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미처 재판기일을 몰랐거나 군인이 지키는 정문에서의 증명서 대조에 걸려 들어오지 못한 가족이 많았다.

7월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관은 이철과 나, 김병곤, 나병식, 여정남, 김지하, 이현배에게 사형을, 황인성, 정문화, 이근성, 서중석, 안양로, 김효순, 유근일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정윤광, 강구철,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영준, 송무호, 정상복, 이광일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받았다. 구형이 떨어질 때 몇 사람이 피식 웃다가 옆을 지키고 있는 헌병한테 주의를 받았다.

엄청난 형량에 변호인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흥분하였다. 그 래도 황인철 변호사는 차분하게 따져 나갔지만, 홍성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떨렸다. 세 번째로 등단한 강신옥 변호사는 대뜸 고문당했느냐고 물었다. 좀 떨렸지만 그의 어조는 단호하였다.

강변호사는 “과연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금 검찰관들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을 걸어 빨갱이

로 몰고 사형이니 무기니 구형하고 있어, 이는 법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사법살인 행위가 될 수가 있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무서운 발언이었다. 법정은 아연 긴장 속으로 빠져 들었다.

강변호사는 강경변론을 계속했다. 그는 “본 변호인은 기성세 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하여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고 말했다.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그의 변론은 중지당했고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였다.

조금 있다가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강신옥 변호사는 밤까지 계속된 결심공판을 다 지켜볼 수 없었다. 그와 홍성우 변호사는 법정 옆방으로 연행되었고, 1주일이 지나 구속되었다. 변호사가 변론 때문에 구속된 전세계적으로 지극히 희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강변호사는 88년 3월에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4년만이였다.

우리는 그날 호송차에 실려오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풀죽은 것도 아니었다. 서대문구치소 문을 들어설 때 여정남에게 아무리 독살스러운 사람이지만 설마 사형이야 시키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여선배는 허탈한 듯한 목소리로 “박정희는 지금 몇 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애” 하고 대답하였다.

이 날부터 나는 잡범들과 합방되었다. 구치소 내에서도 수갑을 차고 생활했으며 식사 때만 풀어줬다.

7월 13일 법정에서 여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마음씨가 좋은 것처럼 보였던 재판장 박희동 중장이 입을 열었다. 모두 구형량 그대로였고, 나상기, 이직형, 서경석은 자격정지 15년을 추가받

았다. 나는 다른 6명의 친구, 선후배와 함께 사형수가 된 것이다.

그후 7월 20일 국방부 장관 판결 확인과정에서 이철과 나, 김병곤, 나병식, 김지하 등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이현배는 2심에 가서야 무기로 감형되었다. 여정남은 다른 7명의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지며 강신옥 변호사가 말한 ‘사법살인’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듬해 2월 15일과 17일 긴급조치에 관련된 피고들은 대통령 특별조치에 의해 모두 석방되었으나 이현배, 이강철, 김효순과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 그리고 나는 석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철을 포함해 모두 석방되고서 우리 몇 사람만 묶어 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는 대학생이 아닌 졸업자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말이 안되었다. 학생 아닌 김지하나 유근일과 기독교 관계자들도 같은 죄목인데도 모두 석방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특유한 인질극이 우리 몇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나는 이현배 선배 등과 함께 광주교도소 특별사로 이감되었다. 1.1평짜리 감방 71개로 이루어진 특별사는 뒤로 난 변소 옆의 창마저 나무로 엮비슷이 막아놓아 완전 밀폐된 곳이었다. 말로만 듣던 간첩 수용사로 6·25 직후 들어온 사람들은 25년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극적인 역사의 한 현장이었다.

긴급조치 9호 후배들이 들어오고 목사, 신부 등 다수가 이 감호면서 가족같은 분위기가 감돌 때도 있었다. 윤보선 전대통령, 김옥길 총장도 몇 차례 찾아왔지만 면회는 할 수 없었다. 한 분은 공범(?)이었고, 한 분은 공범(김동길)의 누나였다.

77년부터 석방설이 무성하더니만 78년 7월 말 우리에게도 각서를 쓰라고 하였다.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박형규 목사가 특별 접견하여 설득하였다. 몇 번 항의하였으나 자기를 믿으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앙정보부 직원과 각서 문구로 밤새 옥신각신하다가 새벽녘에 거의 실신상태에 이르렀다.

겨우 교도관이 대필한 각서에 지장을 찍고 들것에 실려 감방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석방되었다. 꼭 4년 4개월만이었다. 이강철, 임구호, 서광태 등과 소위 인혁계의 어른들을 뒤에 두고 먼저 나오니 어둡고 안타깝기만 하였다.

석방되고도 곧 재구속될 뻔하였다. 종로 5가 기독교회관 강당에서의 석방 환영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였다고 항변하였다가 다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것이다. 민청협 등이 항의시위를 해서 그런지 재구속으로 결정이 되는 것같더니만 1주일만에 석방시켰다. 우리집에는 재야단체인 민청협, 구속자가족협의회, NCC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몰려와 농성을 하였다.

인혁당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현재의 시점에서 민청학련 사건을 평가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빠를지도 모르고 내가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기록 자체가 황망 중에 이루어졌고, 여러 친구, 선후배 동지들의 이야기를 취재(?)하여 종합적으로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스럽기만 하다. 마치 우리 몇 사람이 다 한 것처럼 씌어진 면이 있으나 민청학련 사건에는 주동적으로 일한 사람들만도 수

십명이 넘는다. 언젠가 상세한 기록이 만들어질 것을 기다리며 우선 내가 알고 있고 들은 것 일부만 기록하였다.

특히 이강철 등 경북대학, 윤한봉 등 전남대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거듭 사죄한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확정판결 다음날 포악한 권력의 희생양으로 전격적으로 사형을 당한 여정남 선배와 소위 인혁당 관련자 7명에 대해서 삼가 명복을 빈다.

